

2024. 3. 12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

문화재관리과장

김건태

02-2133-2650

문화재관리팀장

빈재석

02-2133-265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6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www.unhyeongung.or.kr/>
상단(프로그램)→좌측(전체 프로그램)

따뜻한 봄날, 고궁에서 즐기는 향긋한 차 한잔 운현궁 <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> 개최

- 운현궁, 전통 다도 체험하는 ‘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’ 프로그램 진행
- 3.16.(토) 15시, 3.22.(금) 19시 각 50분간, 운현궁 이로당에서 개최
- 차를 우리고 마시며 삼색 다식 짚기 체험... 참가비 1팀 2만원
- 각 회차별 2인 1팀, 10명 한정 사전 예약 후 진행, 운현궁 네이버 예약페이지 예약 가능

서울시 전통문화공간 운현궁(종로구 삼일대로 464)에서 새봄을 맞아 전통 다도 체험 프로그램 <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>을 개최한다. 행사는 3.16.(토) 15시, 3.22.(금) 19시 두 차례 진행된다. 운현궁 ‘이로당’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향긋한 차와 함께 전통 다도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다.

이번 <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>은 ▲알아‘봄’(차의 종류와 기본 다례 알아보기) ▲즐거‘봄’(차를 우리고 마시기, 다식 짚고 맛보기)의 두 가지 구성으로 다도 체험과 함께 운현궁의 ‘봄’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.

○ ▲알아 ‘봄’은 다도 강사와 함께 차의 종류와 기본 다례를 알아보고, ▲즐거

‘봄’은 차를 손수 우려내어 마셔보고 삼색 다식을 직접 찍어내어 먹어보는 시간이다. 두 가지 ‘봄’을 통해 ‘차’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다.

※ 다식(茶食)은 차 문화와 함께 생겨난 한과의 일종으로, 다식판에 찍어 모양을 낸다.

□ 이번 〈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〉은 회차별 2인 1팀 구성의 10팀으로 진행되는 사전예약제 프로그램으로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소규모의 인원으로도 운현궁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.

○ 1회차는 3월 16일(토) 15시, 2회차는 3월 22일(금) 19시에 개최된다 참가비는 1팀 2만원이며, 운현궁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.

○ 현재 1회차는 사전접수 진행중이며 2회차는 3월 13일(수) 15시에 예약 오픈 예정이다.

□ 특히, 3월 22일(금)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‘봄 밤’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 보름달에 가까운 밝고 둥근달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층 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운현궁 다도 체험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.

□ 운현궁에서 마련한 특별한 다도체험, 〈구름재 다실: 봄봄 운현궁〉과 관련된 자세한 행사 소식은 운현궁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,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.

○ 운현궁

- 누리집 : www.unhyeongung.or.kr

- 인스타그램 : @unhyeongung_official

- 운현궁 관리사무소 (02-766-9090)

- 한편, 운현궁은 시민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해 4월부터 〈구름재 다실〉 행사를 월 2회 금요일 야간에 편성하여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. 기존 다도 프로그램에 계절과 절기에 맞는 변화를 주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기분 좋은 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.

- 김건태 서울시 문화재관리과장은 “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을 맞아, 봄의 향기를 담은 행사를 마련했다.”며 “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에서 즐기는 운현궁 다도체험을 통해 차 예절을 익히고,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만끽하며 심신을 다지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

붙임2

행사 사진 (2023 다도체험 사진)



